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75. 무너진 바벨론과 셋째 천사의 기별

2014. 06. 08.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의 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좀 더 부연한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로 들어갈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4:8~11]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에게 먹인 때문이라는 것이었지요. 진노의 포도주에 대하여 성경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말씀할 차례가 되었지요?

답: 예,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를 그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는데요, 음행은 교회, 곧 예수 이름으로 형성된 종교,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있으면서 정치와 연합하고 정치권과 교회를 합친 교회나라를 형성하고 모든 나라와 종교적 이념으로 외교를 하며 그 나라들이 이 교회나라의 사상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언젠가 아브로 만하탄이 쓴 책에서 읽었지요. 미국이 “교황청과 대사를 교환하게 됨에 따라 미국은 단일 교단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고 한 사실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국가가, 근본이 예수 이름으로 설립된 교회인 단일 교단과 국가로서 국가의 자격으로 외교 수립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교회국가, 곧 단일 교단국가와 외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그 교회국가의 사상을 용납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국민들이 마시는데 크게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므로 이 교회국가는 진리에 대하여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18:4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라고 권고합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인식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8:4을 한 번 읽어봅시다.

[계18:3,4]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지요. 정말 정신 차리고 바벨론이라고 기록한 그런 사상에서 조직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깨닫고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짐승의 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고대 바벨론의 숫자가 6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6진법을 사용했다고 하는군요. 우리가 한 시간을 60분으로 나눈 것은 시간 계산이 바벨론 학자들이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큰 우상을 세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크기가 60규빗이고 폭이 6규빗입니다. 또 바벨론 신전 제사장들이 사용한 신비한 숫자의 부적이 있는데, 가로 세로 빗겨의 합이 어느 것이나 666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용, 바다짐승, 땅 짐승은 다 바벨론적인 것인데 각각 6입니다. 그러니까 666이지요. 즉 사단의 삼위일체의 수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녀로 표상된 큰 도시 바벨론은 바로 13장에 나타난 용과 바다짐승과 땅 짐승의 연합된 교회국가를 나타내고 있으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성경과 성경에 예언된 역사적 사실들을 면밀히 살펴서 올바른 분별과 판단으로 무너지는 바벨론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목사님, 참 깊이 생각해야 할 사실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겠습니까. 바벨론은 우선은 신약적 바벨론이 있겠고, 교리적 바벨론도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조직의 바벨론도 있겠네요.

답: 목사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 바벨론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서 탑을 쌓습니다. 탑이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고 땅의 거민들이 그 탑을 중심으로 흠어지지 않고 모여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언어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동한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그는 함의 후손으로 구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창10:9에 보면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앞에” 라는 말을 70인 역 헬라어 성경에는 “에난티온”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말은 “대적하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냥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탑을 쌓은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탑 쌓는 것을 중지시키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들은 그것을 바빌루라고 했답니다. 뜻은 하늘가는 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인류는 영원한 멸망으로 지구의 역사가 끝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기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피조물이기를 거부하는 피조물에게 그 존재를 회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아담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길을 준비하신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세상에 흠으심으로 그들이 다시 개별적으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벨론은 혼잡을 뜻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언어는 한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오늘날과 같은 나라마다 지방마다 언어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계시했습니다. 언어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바벨은 결국 예수님을 혼잡하게 하는 집단이라는 의미가 성립됩니다. 역사의 종말에 계시록에 나타난 바벨론은 바로 성경의 진리를 혼잡케 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창녀로 표상했고 큰 도시 바벨론이라고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기록된 성경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바벨론입니다. 그런 교리와 신조를 믿으면 그것은 신앙의 바벨론이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바벨론에 대하여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네요.

3. 이야기가 길어졌어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애청자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답: 감사합니다. 그 구절은 이미 읽었지만 다시 읽도록 합시다. 계14:9~13까지인데요, 우선 11절까지만 읽어봅시다.

[계14:9~11]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셋째 천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천사도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이 내용은 13장 8절과 14~18까지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거기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제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 표를 받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것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 받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섞인 것이 없다는 말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서 은혜의 배려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쉼이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에서 짐승과 우상과 짐승의 표에 대하여서는 13장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대하여서도 둘째 천사의 기별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과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예, 구절을 읽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절은 영원지옥설과 영혼불멸설을 주장할 때 잘 인용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올바르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문장 자체로는 쉬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답: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계시와 조화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영혼불멸설이나 영원지옥설의 선입관을 가지고 설명해도 안 되고 또 그 반대의 선입관을 가지고 설명해도 안 됩니다. 십분 성경 전체의 계시와 조화되는지를 잘 살펴면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바벨론에 속하여 있으면 결국은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 받기를 거절하면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기 전에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둘을 비교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비하여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상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계산으로도 어느 것이 이득이 되는지 잘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5. 당연히 영원한 이득을 챙겨야지요. 그렇지만 의식이 있고 몸이 있으니까 당장 현실적 고통이 두렵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을 먼저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19:24,25]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25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없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도시들을 멸망시킨 것이 불과 유황입니다. 그것이 비처럼 쏟아져서 그 도시를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창19:27,28)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유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1: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유황과 불의 형벌이지요. 그런데 여기 영원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이 말은 계시록 14:11의 세세토록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계시록에는 “아이오나스 아이오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밤낮 쉬를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평안이 없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유황과 불이 거기 들어간 사람들을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고 고통만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과 조화되도록 이해하면 다른 것은 어려움 없이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에도 설명하였고, 아마 계시록을 공부하면서도 6장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장면을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나눈 내용입니다. 우선 소돔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는데, 그 도시가 지금 세상에 있으면서 아직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면 영원한 불이 결코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타고 있는 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고고학자들이 그 위치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언젠가 정확하게 찾을는지 모르지만 제 말의 요점은 영원한 불에 탄다는 것이 언제나 꺼지지 않고 타는 불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불이라는 뜻이고 소돔 고모라의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라고 했지요. 또 태울 것을 다 태울 때까지는 결코 꺼지지 않지만 탈 것이 다 타고 나면 더 태울 것이 없을 때는 꺼지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26:20]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집니다. 태울 것을 다 태우고 더 태울 것이 없으면 불이 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여호와와 불, 곧 영원한 불에 타서 완전히 재가 되었고 그 불은 꺼졌습니다. 같은 사건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벧후2: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의 본을 삼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들도 다 타서 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라기서에도 기록되었습니다.

[말4:1~3]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같은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3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극렬한 풀무 불에 악인들이 다 타서 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37편 10절에 있습니다.

[시37:10]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세세토록 또는 영원한 이라는 말은 탈 것을 다 태울 때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올람”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이 “올람”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 들어갔는데, 그는 기도하면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빛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욘2:6)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오래도록”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올람”입니다. 옛날 번역은 “영원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올람은 3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배속에 들어가게 할 때에 3일 후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나에게는 전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물고기 배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언제 거기서 나올는지 거기서 죽을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간을 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언제 꺼질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탈 것이 다 타면 꺼지는 것인데, 언제까지 탈는지 그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영원한 불, 또는 세세토록 타는 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단든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표현이 어떤 뜻인지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사상과 조화되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6. 세세토록이라는 말을 알겠습니다. 애청자들도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군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과 바른 관계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확립하고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된다는 것이군요?

답: 예, 그렇습니다. 결국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그 존재를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밤낮 쉬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밤낮 쉬지 못한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결코 쉬이 없다는 뜻이지요. 이 말씀은 13절과 대조를 이루는 말입니다. 13절은 이제 12절과 함께 살펴야 할 내용인데, 아무튼 거기에는 수고를 그치고 쉬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쉬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인데, 안식은 사람이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이 됩니다.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지요.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지내면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안식이 안 되지요. 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히4:9~11]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0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요. 히브리 4장에 안식, 또는 쉼이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10번은 “카타파우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직 9절에 “안식할 때”라는 말만 “사바티스모스”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히4:9에 처음 기록된 말입니다. 히4:9절 이전에는 어느 문헌에도 없는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카타파우시스는 신약성경에 9회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 곧 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바티스모스는 제7일 안식일에 안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안식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옛날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일에 카타파우시스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7일에 자기들의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에 안식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계14:12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밤낮 쉬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고 또 참된 쉼에 대한 의미도 모르며 안식 자체도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거절했기 때문에 쉼이 없습니다. 그들은 종국적으로 불과 유황으로 태움을 당하며,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그 존재를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 괴로울 것입니다.

7. 예, 세세토록이라는 말과 밤낮 쉬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기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군요.

답: 그렇지요. 이 경고는 사랑의 권고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고, 그 당연한 결과에 대하여 권고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피조물의 신분을 겸손히 시인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하여 창조주께서 베푸시는 쉼이 있는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복되게 살자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랑의 호소이지 위협이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잘 가르쳐서 바른 선택과 반응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사랑이고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8.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서 당합니까?

답: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니까 생각나는데요, 만일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이 말은 그 지옥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 있다는 것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 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천사들과 예수님의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불 속에서 고통의 몸부림치는 모습도 보일 텐데요. 이 말씀은 그런 영원한 지옥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서 그런 고난을 받는다는 표현은 그들이 거룩한 천사들의 봉사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자기들을 살리려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되신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알게 되지만 너무 늦었지요. 모든 기회가 다 지나간 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바로 예수께서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지요. 아무쪼록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깨닫고 받아들여서 성도들이 되어 그날을 맞아야 하겠습니다.

9.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군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세토록이라는 말의 성경적 뜻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쉼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 안에서 밤낮 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시고 그날 영광의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